

“관람료 수입이 신도회 위축 초래”

‘중앙신도회 50년 평가...’ 연찬회에서 박희승씨 주장

📺 “1973년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시작되면서 신도 교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결국 70년대 이후 전국신도회의 상대적 위축 문제와도 연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신도운동50년’ 평가와 올바른 신도상 정립’을 주제로 7월 14일 개최한 제3차 포교정책연찬회에서 교육원 불학연구소 박희승 차장에 의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50년, 성찰과 전망’을 발제한 박희승 차장은 당시 사찰들은 신도 시주보다 문화재 관람료가 현실적인 수입원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신도 교회를 등한시할 가능성을 열었고 관광 수입에 의존하게 돼 신도들의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차장은 초기 신도회가 출가중 재가중이란 개념을 사용하며 출가가 수행자가 함께 하는 교단관을 보여 주고 있었지만 현재 중 단은 중현에 사부대중으로 구성된다는 규정과 달리 비구승 중심의 운

영체제로 굳었다고 신도회 활동과 현황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신도회는 삼보 호지와 수행의 기본을 갖춘 재가신도들의 결집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조계종 신도 교육 시스템 및 신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부처님 법과 현실에 맞는 신도회의 이념 서원(목표) 정책 사회활동 프로그램 정립, 신도 지도자 인력 양성시스템 확충 등을 과제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최연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전환점으로 사찰운영의 물적 토대가 달라져 신도의 필요성이 떨어진 것”이라며 “문화재관람료가 특정사찰 배분기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폐해가 있었던 만큼 불교계가 자신해서 정부에 폐지건의를 하고 문화재보수비를 따로 책정해서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연 사무총장은 또 “종단운영에 있어서의 사부대중공동체 실현, 사찰신도회 중심에서 지역신도회 중심으로 조직적 변화, 소속단체의

포교원 등록은 신도회 자율성 현격히 침해, 신도 품계를 수행단계와 체계적인 신도교육시스템으로 평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 신도회 재정자립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토론에 나선 손안식 상임부회(중앙신도회)는 “조계종은 사부대중이 구성한다고 했고 초기 조계종 출범당시는 출가와 재가가 1:1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찰 지역신도회 조직에 박자를 가해서 신도회 창립을 유도해줄 것을 포교원에 당부했다.

이 밖에도 ‘재가불자의 수행실태 분석 및 수행방안 연구-평정도 수행법을 중심으로’ 발제를 통해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재가불자라면 이루어진 수행단계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보편적 수행체계를 갖춰야 하고, 수행의 목적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수행지도자 양성 및 수행의 사회적 화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지연 기자



7월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문화상 의장 초청 불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모습. 문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장 스님 국민의 소리 살펴 주길...
운산 스님 우리것 보존하는 정책을...
은덕 스님 정신문화 계발에 초점을...
종단현, 우리당 문화상 의장 초청 간담회 가져**

📺 열린우리당 문화상 의장 초청 불교지도자 간담회가 7월 13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6개 소속종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화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한국불교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불교계가 한국사회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해 국가발전의 초석이 돼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평소에 불교에 관심갖고 격조와 엄려를 해주는 열린우리당 불자원의 모인 이타회원들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소리를 살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인 만큼 우리의 것을 보존하는 문화재 정책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또 천태종 총무원장 은덕 스님은 “국가 정책도 이제는 마음을 위주로 한 정신문화를 계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며 덧붙였다.

관음종 총무원장 흥과 스님과 총회총 총무원장 남정 스님 등은 △성보박물관 향온합승장지 전기로 지원 △종교부지 제한 해제 △국사교육 확대 △법패의 유네스코 지정 협조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열린우리당에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선거제도 개선 ‘안개속’

잇따른 간담회...필요 인식, 방법엔 이견

조계종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7월 13일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스님들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 중앙총회의장 법승 스님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간담회는 6월 11일 교구본사 주지사님들을 시작으로 종책모임 일승회·화엄회, 금강회, 중앙총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종정기관 소속 스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차를 보였다.

총무원장 선거의 경우, 교구본사 주지사님들이나 일승회·화엄회 스님들은 선거인단 규모 ‘축소’(교구본사 주지+중앙총회의원을 원했지

만 종정기관 소속 스님들은 현행(중앙총회의원 81명+교구별 선거인단 240명)보다 ‘확대’를 원했다.

양측 모두 대의적으로는 현행 총무원장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선거인단 축소나 확대를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선거인단 포함 여부에 따라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또 교구본사 주지는 산중총회나 운영위원회 등에서 ‘추대’하는 것으로, 중앙총회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강화하지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한편 현재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는측은 올 9월 열릴 예정인 임시 중앙총회에 선거 관련 종현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진각종, 평양인근 ‘협동농장’ 지원



진각종이 평양인근 협동농장 운영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정 총무원장(사진 오른쪽 맨 앞)과 이행정 문화사회부장(오른쪽 두번째), 장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은 7월 13-14일 금강산 묵관호텔

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위원장(왼쪽출 가운데), 차금철 스님(왼쪽출 맨 앞)과 회담을 갖고 협동농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별원은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각종 대표단의 평양방문을 요청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학 결집대회 내년 4월 21~23일

9월 30일까지 논문 접수

2006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합천 해인사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종림, 이하 결집대회)는 산사의 맛과 불교학의 매력 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대회가 될 전망이다.

조직위원회 이종표 위원장(전남대 교수)은 7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결집대회를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치르고, 전통문화공연, 명승 답사 시간도 마련하는 등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9월30일까지 대회참가를 희망하는 논문발표자를 모집한다. 발표 자격은 대학(승가대 포함) 강사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불교관계 전문인이다. (02)923-7994 www.skbor.kr

박익순 기자

법장 스님, 교류협의 대만행

19~22일, 심원 스님·천수이벤 총동등 만날 계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7월 19-22일 대만을 방문해 포광산사(佛光山寺) 심원(星雲) 대사와 천수이벤(陳水扁) 총통을 잇달아 만나 양국 불교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대만 불교우호교류행사차 방문하는 법장 스님은 20일 타이베이 중정기념관에서 천수이벤 총통을 만나 양국 우호 교류 등에 논의한다. 21일 포광산사에서 열리는 심원 대사와 좌담회에서 법장 스님은 한국과 대만 불교 전반에 대해 심도깊은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포광산사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는 조

계종 중앙총회의장 법승 스님을 비롯한 중앙총회의원 스님들과 중앙총무원 교역직 스님 등 30여명도 함께 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본사사령	경산 스님 몽골, 베틀나 씨 독일 통신문
혜철 스님 총대신·총북 지사장	본사는 7월 20일자로 몽골 고려사 총무원장 스님과 독일인 베틀나 씨와 에플레 씨를 각각 몽골 통신문과 독일 통신문에 임명했다. 경산 스님은 2003년 금강선원 상량회에서 출가, 활안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베틀나 씨는 독일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서병수 총 울산지사장	
이상 7월 1일자	

총회 회의실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에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조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동대특위의 또 소위원회(위원장 토진) 차원에서 진행된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거부된 것에 대해서도 소명기회를 주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대특위 소위 위원장 토진 스님은 “동국대의 학교회계는 안정적이지만 법인회계는 700억 이상의 부채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향후에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해 관련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1면에서 계속

청주 관음사의 경우, 지난 95년 8월 개원후 매일 한 차례 포살 법회를 열고 있다. 포살법사가 예경삼보, 현한계 등의 포살요목과 보살계서문을 먼저 낭독하면, 신도들이 ‘나무서가모니불’을 외며 참회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반응도 좋다. 빠짐없이 포살법회를 참석한다는 고보은씨(65·서울 반포동)는 “처음에는 지계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지금은 자기반성은 물론 기복 중심의 실행에서 벗어나 복을 짓는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중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hdhopia.com
불교소셜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투명한 교단, 청렴한 지도자

이것은 21세기 불교중흥의 대전제입니다.

한국불교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 ▶ 불교인구 6.1% 증가(전체인구 중 24.4%)
- ▶ 대전/충청, 광주/전라지역 개신교인구 추월
- ▶ 비종교인 중 불교호감 37.4%로 개신교의 3배
- ▶ 도시근로자 불교인구 증가
- ▶ 고령화이상 불교인구 급성장
- ▶ 30세 이하 젊은 불교인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네트워크 시대, 잊었던 한국인 정체성에 대한 관심, 웰빙 바람을 타고, 교단의 안정 속에 더 많은 시민들이 불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자들의 불만과 불신은 높습니다.

- ▶ ‘시주 1년간 한 번도 한적 없다’(49.3%)
- ▶ ‘스님 역할 만족한다’(58.0%, 불교인이 최하)
- ▶ ‘품위/자질 부족한 스님 많다’
 - 불교인의 88.4%가 그렇다고 대답
- ▶ ‘종교단체가 본래 뜻을 잃어버리고 있다’
 - 불교인 69.4%가 그렇다고 대답

(04년 한국갤럽 조사 내용 인용)

일부 교단 지도자들에 대한 불자들의 불신과 불만은 교단의 유지, 운영에 대한 대중적인 외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단, 발등의 불입니다.

- ▶ 스님들의 기본생활비(교육/수행비, 품유위지비)와 노후보장을 통해 스님들이 자기개발, 수행, 포교, 사회회향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공적인 정재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 ▶ 삼보정재를 소외된 사람들과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일에 적극 투입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단 고위직의 지도자, 재정이 넉넉한 사찰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청정교단수호부패근절비상회의
공동대표 : 수경, 손안식, 박광서

우.100-85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번지 우리함께회관 3층
전화.(02)2278-3671 | 팩스.(02)2278-3532 | 이메일.budclean@empal.com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budclean

청정교단수호부패근절비상회의는 이렇게 활동해왔습니다.

- ▶ 공신력 있는 서울의 일반시민단체인 ‘문화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교사 등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 하였습니다.
- ▶ 인터넷, 방송, 일간지 등 언론에 이 사실이 대서특필 되어 불교계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 ▶ 이에 본 ‘비상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불교단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의 공개적이고 조속한 해소, 교단의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 ▶ 현재, 불교사 및 문화연대에 공히 사물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비공개로 보냈으나 아직 공식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 ▶ 본 ‘비상회의’는 사회문제화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가 시급히 해명하고 조치를 취하여, 불교계 전체는 물론 제방에서 수행정진하고 계신 스님들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 의혹을 제기 받은 당사자들이 마치 ‘비상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불교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잘못 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